(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43 (2018. 10.), 122-160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18.10.43.122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이사야 6장의 문체 구조 분석
— 평행법 구조를 중심으로 —

김구원*

1. 들어가는 말

이사야 6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에 대한 논문은 무수히 많다.[1]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적 구성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문예-수사적 위치 뿐 아니라, 이사야 6장 안에 포함된 흥미로운 문헌학적, 역사적, 신학적 난제들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사야 6장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문제, 그것의 문학적 장르('소명 내러티브')의 문제, 그 안에 등장하는 스랍 천사들의 정체나 그 중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뜨거운 숯을 댄 행위에 대한 종교사학적 관심, 또한 이사야의 사명에 함의된 은자(隱者)적 신 개념(9-10절), 여호와의 예언(12-13절)의 논리적 불일치의 문제, 특히 13절의 마지막 세 단어 '제라 코데쉬 마짜브타(זרע קדש מצבתה)'가[2] 후대에 첨가된 것인지의 문제 등은 이사야 6장이 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하지만 이사야 6장의 운문적 특징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듯하다.[3] 그 부분적 이유는 시 전체에 골고루 퍼져

*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koowonk@rts.ac.kr.

1) 자세한 문헌 목록을 위해서는 M. Sweeney,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6), 142를 참조하라.

2) 참고, 장대규, "이사야 6장과 마체바의 의미와 기능 연구", 「구약논단」 14 (2008), 67-86.

3)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사 6장에 사용된 은유적 심상들을 연구한 논문은 다소 있지만, 6장의 평행법 구조를 분석한 논문은 없다. 사 6장의 수사적 구조를 분석한 와그너(R. Wagner)의 논

있는 wayyiqtol 구문(1, 4, 5, 6, 7, 8, 9, 11절)이 이사야 6장을 운문이 아니라 산문처럼 읽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야 6장에 자주 사용되는 첨사들 — 예를 들어, ו(41번), את(6번), אשר(2번 혹은 3번),[4] ה(16번) — 은 6장 본문이 운문보다 산문에 가깝다는 인상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이사야 6장에서 하늘 어전 회의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과 등장인물들 — 스랍, 이사야, 여호와 — 의 직접 화법 부분은 운문의 특징들을 보다 선명하게 가진다. 본 논문의 초점은 앞서 언급한 이사야 6장의 문헌학적, 역사적, 신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 이사야 6장의 산문과 운문의 복합 문체적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평행법적 구조에 집중하고, 저자가 자신의 수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평행법을 사용했는지를 살피려 한다.

2. 연구 방법

특정 본문이 운문인지 산문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의 논지가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깊이 관련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히브리 운문의 특징 하면, 평행법을 떠올릴 것이다. 로버트 로우드(Robert Lowth)는 *De Sacra Poesi Hebraeorum*(히브리인들의 거룩한 운문에 관하여)이라는 제목의 책(1753년 출판)에서 평행법을 히브리 운문의 결정적 요소로 이해하고, 그것을 세 가지 종류 — 동의, 반의, 종합 — 로 구분했는데, 이후의 평행법 연구는 이런 로우드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5] 평행법 연구에 있어 로우드의 오랜 영향을 부순 학자는 제임스 쿠걸(James Kugel)이었다. 그는 *The Idea of Biblical Poetry*(성서 운문의 개념)라는 제목의 책에서 평행법에 대한 로우드의 삼단 구분에 반대했을 뿐 아니

문(*Textexegese als Strukturanalyse* [Erzabtei St. Ottilien: EOS Verlag, 1989])은 필자가 여기서 시도하려는 평행법 구조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이 사 6장의 운문적 특징들을 지나가듯 언급하였다. 엥그넬(I. Engnell)은 사 6장의 직접 화법 부분에 운율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I. Engnell, *The Call of Isaiah, An Exegetical and Comparative Study* [Leipzig; Uppsala: A.-B. Lundequistaka, 1949], 20). 블렌킨소프(J. Blenkinsopp)도 현대 인쇄본(*Biblica Hebraica Stuttgartensia*)이 그것을 산문처럼 편집했지만, 운문으로 재편집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J. Blenkinsopp, *Isaiah 40-55* [New York: Doubleday, 2000], 78).

4) MT에 따르면 אשר가 11절과 13절에서 각각 한 번씩 2번 사용되지만, 쿰란 본문에서는 11절에서 한 번, 13절에서 두 번, 모두 3번 사용된다.

5) A.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1; 아델 베를린,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이희성 역 (서울: 그리심, 2012).

라, 평행법이 히브리 운문의 결정적 요소라는 견해에도 회의를 품었다.[6] 나아가 그는 운문과 산문의 구분이 헬라적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하며, 히브리 문학에는 운문과 산문 사이의 엄밀한 구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히브리 문학에는 문체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문장은 다른 문장보다 더 '고양된 문체'(elevated style)로 되어 있으며, 그 문체의 고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독자들이 시나 운문으로 느낀다고 주장한다.[7] 그리고 고양된 문체의 결정적 특징 두 가지를 간결성과 평행법으로 정의한다.[8]

히브리 문학에서 평행법이 운문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평행법이 사용된 문장이 반드시 운문은 아니라는 쿠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히브리 문학에서 산문과 운문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쿠걸 자신도 히브리 문장들 가운데 존재하는 문체의 차이를 인지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그가 히브리 시문을 '고양된 언어' 혹은 '고양된 문체'라 부른다 해서 시문이 시문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걸에 고양된 문체의 두 가지 특징으로 정의한 간결성과 평행법은 히브리 운문을 분별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간결성과 평행법을 운문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아, 이사야 6장의 본문을 분석하려 한다. 하지만 간결성과 평행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쿠걸 이후에 등장한 여러 학자들의 진보된 견해에 의존할 것이다.

특히 평행법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운문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한 평행법의 존재가 아니라, 평행법의 "시학적 기능"(poetic function)이라는 베를린(A. Berlin)의 통찰이다. 베를린에 따르면 시인은 평행법을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학적 장치로 사용한다. 따라서 운문 여부를 판별할 때, 평행법의 사용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사용된 평행법이 시인의 메시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살펴야 한다.[9] 둘째, 평행법을 두서너 행으로 구성된 연(聯, bi-, tri-, quadri-colon) 안에서만 관찰했던 전통과 달리, 파르디(Dennis Pardee)는 평행법이 연을 넘어, 연과 연 사이 혹은 시 전체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처럼 시 전체에서 작동하는 평행법들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평행법의 "시학적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사야 6장에 다양하게 분포된 평행법의 예들

6) James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70.
7) Ibid., 86-87.
8) Ibid., 88.
9) A.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4.

을 파르디가 고안한 표기법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10]

3. 이사야 6장의 행과 연 구분

'절' 표시가 일반적으로 의미 단락들의 경계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시 단락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절의 첫 단어가 이전 절과 하나의 연(聯)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한 절 안에 하나 이상의 연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서 필자는 각 절을 시행의 단위로 구분하였다. 절 번호 다음에 오는 그리스 알파벳 소문자(예, α, β)는 그 행이 산문임을 가리키는 반면, 절 번호 다음에 오는 로마 알파벳 소문자(예, a, b, c … a′, b′, c′ …)는 그 행이 운문임을 가리킨다.[11] 또한 알기 쉽도록 산문 부분은 이탤릭체로 표기하였고, 운문 부분은 들여쓰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설명에서 필자는 절 단위(예, '3'절)보다 행 단위('3a'행 혹은 '10b'행)로 본문을 인용할 것이다.[12]

1. **α** ***בשנת־מות המלך עזיהו ואראה את־אדני***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주를 보았다*
   a **ישב על־כסא** 보좌에 앉으셨고,
   b **רם ונשא**[13] 높이 들려 계셨고,

---

10) 많은 학자들이 평행법이 의미의 영역 뿐 아니라(예, 쿠걸의 "A what's more B"), 소리나 문법의 영역에서도 존재함을 주장하지만, 지면 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소리나 문법 요소에 의한 평행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11) 같은 절에 속했으나, 다른 연에 속한 행들을 구분하기 위해 필자는 로마 알파벳 소문자 옆에 프라임(′)을 붙였다. 예를 들어, 시행 10a, 10b, 10c가 속한 연은 10a′, 10b′, 10c′, 10d′가 속한 연과 다르다. 연의 시행들 사이의 의미 관계는 아래의 <표4>에서 로마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 구분은 아래에서 평행법의 분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김구원, "시편 23편의 평행법 연구", 「개신논집」 18 (2018), 37-38.

12) 주목해야 할 것은, 히브리 운문의 행 연 구분은 학자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 연 구분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몇몇 지표들만 있을 뿐이다. 필자의 제안은 잠정적인 것이지만 이하의 평행법 분석을 통해 그 적절성이 증명될 것이다.

13) 이 두 분사가 바로 앞의 명사 **כסא**('보좌')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그 전의 **אדני**('주님')를 수식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어순 상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보좌가 위치한 지성소가 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으며 계단을 통해 그곳에 접근했다고 주장한다(참고, 왕상 6:2; G. A.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ton, 1962], 537). 하지만 맛소라 강세에 따르면 그 두 분사는 '보좌'와 불연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스왈트(John N. Oswalt)는 그것들이 '주님'을 수식할 가능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스왈트는 이사야서에서 그 두 분사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수식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참고, 사 52:13; 57:15.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Grand Rapids: Eerdmans, 1986], 178).

	c	**ושוליו מלאים את–ההיכל**[14]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2.	a	**שרפים עמדים ממעל לו**[15]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b	**שש כנפים**	여섯 날개가,
	c	**שש כנפים לאחד**	각기 여섯 날개가 있었다.
	a′	**בשתים יכסה פניו**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b′	**ובשתים יכסה רגליו**[16]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c′	**ובשתים יעופף**	둘로는 날고 있었다.
3.	α	***וקרא זה אל–זה ואמר***	*서로 불러 이르되:*
	a	**קדוש קדוש**	거룩하다 거룩하다,
	b	**קדוש יהוה צבאות**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하다,
	c	**מלא כל–הארץ כבודו**[17]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	α	***וינעו אמות הספים מקול הקורא***[18] [19]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14) **שול**은 외투의 허리 아래로 늘어진 부분을 가리킨다(G. Buchanan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Edinburgh: T&T Clark, 1912], 103). 델리취(F. Delitzsch)는 그것의 기능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베일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이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다(F. Delitzsch, *Isaiah*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6], 124).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은유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15) **עמד**가 **ישב**와 짝을 이루어 사용될 때, 전자는 종의 자세를 가리키고, 후자는 주인의 자세를 가리킨다. 스랍들이 여호와 '위'(**על**)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주전 8세기 유다에서 널리 발견되는 스랍 부조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그 부조에 묘사된 날개 달린 스랍들은 신 혹은 왕 위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O. Keel, *Jahwe-Visionen und Siegelkunst. Eine Neue Deutung der Majestätsschilderungen in Jes. 6, Ez 1 und Sach 4* [Stuttgart: Verlag Catholisches Bibelwerk, 1977], 111).

16) 타르굼에서는 "몸"(**גויתיה**)이 "발"(**רגליו**)을 대신한다. 즉 천사의 날개가 몸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한편 고대 근동 문헌에서 "발"은 "손"과 더불어 종종 성기에 대한 은유어로 기능한다. 여기서도 그런 은유적 의미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 출 4:24; 사 7:20; 룻 3:7.

17) 직역하면 "그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다." 히브리어 문장에서 서술어가 도치되어 강조되고 있다. 엥그넬은 3절에서 이집트 제의를 읽어낸다. 이집트의 대제사장이 새해 축제 때 보좌에 앉은 파라오 앞에서 "깨끗하고 깨끗하다(*w'b w'b*)! 남과 북의 왕이여. 그대의 깨끗함은 호루스, 세트, 토트, 소푸의 그것과 같다!"고 선포했다고 한다. 엥그넬은 여기 언급된 네 신이 지구의 사방을 나타내므로, 이집트 제사장의 선포는 "그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다"(3c)는 스랍의 선언과 대동소이하다고 이해한다(I. Engnell, *The Call of Isaiah*, 37).

18) 평행법의 관점에서 **הקורא**가 여호와를 가리킨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같은 동사가 3절에서도 스랍을 주어로 사용된다. 즉 3절에서 서로 "외치는" 존재가 4절의 "외치는 자"인 것이다. **הקורא**가 단수라는 사실도 그것이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단수 분사는 종종 집합 명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이다. 참고, G. Buchanan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108.

19) **אמות**의 의미는 확실치 않다. 『개역개정』의 번역 "터"는 그것을 히브리어 **אם**("어머니")의 파생어로 이해한 번역이다.

β *והבית ימלא עשן* [20] *성전이 연기로 가득했다.*

5. α **ואמר** [21] *그 때에 내가 말했다:*
   a **אוי–לי כי–נדמיתי**[22] 화로다-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b **כי איש טמא–שפתים אנכי**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c **ובתוך עם–טמא שפתים אנכי יושב**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d **כי את–המלך יהוה צבאות ראו עיני**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다.

6. α *ויעף אלי אחד מן–השרפים ובידו רצפה* *스랍 중 하나가 숯을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왔다*
   β *במלקחים לקח מעל המזבח* *그가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집은 숯이었다.*

7. α *ויגע על–פי ויאמר*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a **חנה נגע** 보라 (숯불이) 닿았다!
   b **זה על שפתיך**[23] 바로 네 입술 위에.
   a′ **וסר עונך**[24] 네 악이 떠나갔고,
   b′ **וחטאתך תכפר** 네 죄가 사하여졌다.

8. α *ואשמע את–קול אדני אמר*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a **את–מי אשלח** 내가 누구를 보내며,
   b **ומי ילך–לנו**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

20) 와우 연계형 미완료(wayyiqtol) 대신 주어를 도치시켜 미완료 형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구절은 상황 부사절이다. 즉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지속적으로 성전을 채우고 있음을 암시한다. 참고, John D. W. Watts, *Isaiah 1-33*, WBC (Waco: Word Books, 1985), 69.

21) 사 6장에서 동사 **אמר**가 wayiqqtol 형태로 사용될 때, 그것은 단순히 직접 화법을 도입하는 기능 이외에, 내러티브의 플롯을 진행시키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번역할 때도, 단순히 "말했다"보다 "탄식했다"(5α), "정결을 선포했다"(7α), "물었다"(8α), "대답했다"(8β, 11β), "사명을 주었다"(9α), "불평했다"(11α) 등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22) 히브리어 본문에 모음 문자가 도입되기 전의 형태인 **נדמת**는 **דמם**("잠잠하다") 혹은 **דמה**("망하다")의 니팔 형태로 분석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 중 어느 분석이 옳은지는 문맥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문맥이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로버츠(J. J. M. Roberts)는 저자가 그 단어에 이중적 의미를 집어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매한 형태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When one first encounters *ndmyty* following the lament, "Woe is me," the tradition and parallels with other vision experiences incline one to translate "I am undone/lost" or the like, but as one continues reading the encounters repeated references to lips and the motifs of Isaiah's preparation for his prophetic commission, one is forced to reconsider and entertain the possibility that *ndmyty* alludes to the prophet's preliminary inability to speak" (J. J. M. Roberts, "Double Entendre in First Isaia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4 [1992], 46). 필자는 로버츠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아래의 분석에서는 편의상 "망하다"로 해석하였다.

23) **זה**는 **הנה**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오는 문장 요소를 강조하는 허사로 사용되었다. **זה**가 **רצפה**를 받는 지시사라면 여성형인 **זות**가 사용되어야 했다.

24) 『개역개정』의 번역 "(네 악이) 제하여졌다"는 그 구절에서 "악"이 의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직역하면 "(네 악이)떠나갔다"이다. 죄가 의인화된 다른 구절을 보려면 왕하 7:9를 참조하라.

	β	**ואמר**	*내가 이르되:*
	a′	**הנני שלחני**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9.	**α**	**ויאמר**	*또 (주께서) 이르시되:*
	a	**לך ואמרת לעם הזה**[25]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a′	**שמעו שמוע ואל–תבינו**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b′	**וראו ראו ואל–תדעו**[26]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	a	**השמן לב–העם הז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b	**ואזניו הכבד**	그들의 귀가 막히고,
	c	**ועיניו השע**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a′	**פן–יראה בעיניו**	혹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b′	**ובאזניו ישמע**	귀로 듣고,
	c′	**ולבבו יבין**	마음으로 깨닫고,
	d′	**ושב ורפא לו**[27]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	**α**	**ואמר**	*내가 이르되:*
	a	**עד–מתי אדני**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β	**ויאמר**	*주께서 이르시되:*
	a′	**עד אשר אם–שאו**[28]	황폐하여 질 때까지니라!
	b′	**ערים מאין יושב**	성읍들에 주민이 없으며,
	c′	**ובתים מאין אדם**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d′	**והאדמה תשאה שממה**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12.	a	**ורחק יהוה[29] את–האדם**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25)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사야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그것은 사 1-5장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 특히 김회권은 그들이 5장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H. K. Kim,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1), 40.

26) 절대 부정사를 사용한 강조적 구문은 여기서 빈도와 강도의 뉘앙스를 모두 가진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와 아무리 간절하게 그를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모두 가능하다. 참고, I. Engnell, *The Call of Isaiah*, 18.

27) 일반적으로 **רפא**가 전치사 **ל**와 함께 쓰이면, 그것은 타동사의 의미를 가진다.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목적어 없이 사용되고 있다. 문법학자들은 이를 수동의 의미를 가진 비인칭 구문으로 분석하지만(BDB, 950), 하나님이 주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라고 이사야에게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8) **שאו**가 여기서 완료형으로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491.

29) 이 구절은 여호와의 직접 화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자신을 1인칭 대명사 없이 이름으로 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12-13절이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첨가된 본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엥그넬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

b	ורבה העזובה בקרב הארץ	이 땅 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30] a	ועוד בה עשריה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을지라도,
b	ושבה והיתה לבער	그것도 소멸될 것이다.
a′	כאלה וכאלון אשר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즉,
b′	בשלכת מצבת בם	베임을 당할 때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c′	זרע קדש מצבתה[31]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4. 행들의 균일성에 대한 분석

평행법의 구조와 그것의 '시학적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히브리어 운문에 대한 정성적 분석이라면, 히브리 운문의 또 하나의 특징인 간결성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학자마다 행의 간결성을 측량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시행을 다양한 방법(단어 수, 음절 수, 강세 수)으로 수량화할 것이다. 히브리어에는 정해진 운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 분석을 통해 특정한 운율이 아니라 시행들 사이에 존재하는 길이의 균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다.[32]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확립된 '간결성'이 곧 운문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간결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이사야 6장에서 운문과 산문의 본문을 잠정적으로 분리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리된 운문 부분에 대한 평행법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것의 운문성, 즉 문체적 고양성

서 왕이 자신을 3인칭으로 칭하는 일이 자주 있다(I. Engnell, *The Call of Isaiah*, 45). 사 6장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왕'으로 묘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단락에서 여호와가 자신을 3인칭으로 칭하는 것에 놀랄 필요는 없다. 더구나 여호와는 자신을 칭하면서 8a에서는 1인칭 단수 '나', 8b에서는 1인칭 복수 '우리'를, 12α에서는 3인칭 '여호와'를 사용한다. 이런 변화에 어떤 문학적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12-13절이 이사야의 본래적 예언임을 자세히 변증한 연구를 보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H. K. Kim,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54-66.

30) 본 절은 해석하기 매우 힘들다. 본 절과 관련한 문헌학적 문제들을 개괄하려면 I. Engnell, *The Call of Isaiah*, 13-15와 G. W. Ahlström, "Isaiah 6:13", *Journal of Semitic Studies* 19 (1974), 169-172를 참조하라.

31) 칠십인역에는 이 마지막 세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32) 파르디(Dennis Pardee)는 히브리어 시문에 그리스 시문에서와 같은 '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시행들 사이에 길이에 있어 어느 정도의 균일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참고, Dennis Pardee, "Ugaritic and Hebrew Metrics", Gordon D. Young, ed., *Ugarit in Retrospect: Fifty Years of Ugarit and Ugaritic* (Winona Lake: Eisenbrauns, 1981), 127.

(elevation)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이사야 6장이 산문과 운문, 두 층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일 것이다. 특히 운문 부분에 사용된 평행법은 이사야 6장의 핵심 주제들을 명확히 드러내는 '시학적 기능'을 가짐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산문 부분도 운문 부분과 수사학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표 1> 양적 분석

행과 연	음절수	단어수	강세수	
1α	**17**	**6**	**5**	**bišnat-mōʷt hammelek ʿuzziyyāhūʷ waʾerʾeʰ ʾet-ʾădōnāy**
1abc	5/4/10	3/2/4	2/2/3	yōšēb ʿal-kissēʾ / rām wəniśśāʾ / wəšūʷlāʸw məlēʾīʸm ʾet-hahēʸkāl
2abc	10/4/7	4/2/3	3/2/3	śərāpīʸm ʿōmədīʸm mimmaʿal lōʷ / šēš kənāpayim / šēš kənāpayim ləʾeḥād
2a′b′c′	8/8/6	3/3/2	3/3/2	bištayim yəkasseʰ pānāyw / ūʷbištayim yəkasseʰ raglāʸw / ūʷbištayim yəʿōʷpēp
3α	**9**	**5**	**4**	**wəqārāʾ zeʰ ʾel-zeʰ wəʾāmar**
3abc	4/7/9	2/3/4	2/3/3	qādōʷš qādōʷš / qādōʷš YHWH ṣəbāʾōʷt / məlōʾ kol-hāʾāreṣ kəbōʷdōʷ
4αβ	**14/8**	**5/3**	**5/3**	**wayyānuʿūʷ ʾammōʷt hassippīʸm miqqōʷl haqqōrēʾ / wəhabbayit immālēʾ ʿāšān**
5α	**3**	**1**	**1**	**wāʾōmar**
5abcd	6/10/14/14	4/5/6/7	2/4/5/6	ʾōʷy-līʸ kīʸ-nidmēʸtīʸ / kīʸ ʾīʸš ṭəmēʾ-śəpāt ayim ʾānōkīʸ / ūʷbətōʷkʿam-təmēʾ śəpātayim ʾānōkīʸ yōʷšēb / kīʸ ʾet-hammelek YHWH ṣəbāʾōʷt rāʾūʷ ʿēynāy
6αβ	**17/11**	**7/4**	**6/4**	**wayyāʿāp ʾēlay ʾeḥād min-haśśərāpīʸm bəyādōʷ riṣpāʰ / bəmelqaḥayim lāqaḥ mēʿal hammizbēᵃḥ**
7α	**8**	**4**	**3**	**wayyaggaʿ ʿal-pīʸ wayyōʾmer**
7ab	4/6	2/3	2/2	hinneh nāgaʿ / zeʰ ʿal-šəpāteʸkā
7a′b′	6/7	2/2	2/2	wəsār ʿăbōʷnekā / wəḥaṭṭaʾtkā təkuppār
8α … β	**10/3**	**5/1**	**4/1**	**wāʾešmaʿ ʾet-qōʷl ʾădōnāy ʾōmēr … wāʾōmar**
8ab … c	4/6/7	3/3/2	2/2/2	ʾet-mīʸ ʾešlaḥ / ūʷmīʸ yēlek-lānūʷ … hinenīʸ šəlāḥēnīʸ
9α	**3**	**1**	**1**	**wayyōʾmer**

9a	9	4	4	lēk wəʾāmartā lāʿām hazze^{h}
9a′b′	9/10	4/4	3/3	šimʿū^{w} šāmō^{wa}ʿ wəʾal-tābīʾnū^{w} / ū^{w}rəʾū^{w} rāʾō^{w} wəʾal-tēdāʿū^{w}
10abc	7/5/5	4/2/2	3/2/2	hašmēn lēb-hāʿām hazze^{h} / ū^{w}ʾoznāʾyw hakbēd /wəʿēynāʾyw hāšaʿ
10 a′b′c′d′	6/6/6/6	3/2/2/3	2/2/2/3	pen-yirʾeh bəʿēynāʾyw / ū^{w}bəʾoznʾyw yišmāʿ / ū^{w}ləbābō^{w} yābīʾyn / wāšāb wərāpāʾ lō^{w}
11α … β	**3/3**	**1/1**	**1/1**	**wāʾōmar … wayyōʾmer**
11a	6	3	2	ʿad-mātayʾădōnāy
11a′b′c′d′	6/6/7/11	4/3/3/3	3/3/3/3	ʿad ʾăšer ʾim-šāʾū^{w} / ʿārīʾym mēʾēʾyn yō^{w}šēb / ū^{w}bātīʾym mēʾēʾyn ʾādām / wəhāʾădāmā^{h} tiššāʾe^{h} šəmāmā^{h}
12ab	9/13	4/4	3/4	wəriḥaq YHWH ʾet-hāʾādām / wərabbā^{h} hāʿăzū^{w}bā^{h} bəqereb hāʾāreṣ
13ab	7/10	3/3	3/3	wəʿō^{w}d bāh ʿăśiriyyā^{h} / wəšābā^{h} wəhāyətā^{h} ləbāʿēr
13a′b′c′	9/8/7	3/3/3	3/3/3	kāʾēlā^{h} wəkāʾallō^{w}n ʾăšer / bəšălleket maṣṣebet bām / zeraʿ qōdeš maṣṣabtāh

4.1. 설명

히브리 운문에서 엄격한 의미의 ‘운율’이 존재하지 않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33] 언어를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시의 일반적 성격상, 시행들은 산문 문장 보다 대개 간결하며, 그 길이에 있어서도 균일성을 보인다. 따라서 특정 본문에 대한 양적 분석은 운문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1>은 시행들 간의 균일성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각 행의 음절, 단어, 강세의 수를 표시하였다. 음절의 경우, ‘중간 쉐바’(medial Shewa)는 편의상 무성 쉐바로 간주하였고(예, 9a′의 **שמעו**[šimʿū^{w}]는 2음절로 계수함), 단어의 경우, 비분리전치사 *b*, *l*, *k*나 접속사 *w*, 정관사 *h*는 개별 단어로 취급하지 않고 결합된 단어와 한 단어로 취급하였다. 강세의 경우, 2차 강세는 제외하고 1차 강세만을 계수하였다.

33) 파르디는 서양 시문학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어지는 네 가지 운율 체계를 검토한 후 이들 중 어느 것도 히브리 혹은 우가리트 운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참고, Dennis Pardee, “Ugaritic and Hebrew Metrics”, 113-130.

4.2. 분석

주로 와우 연계형 미완료 동사들(이하 wayyiqtol)을 포함한 볼드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행 길이의 균일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음절이나 단어의 수에서보다 강세의 수에서 행들 간의 균일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즉 5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행들은 2개 혹은 3개의 강세 음절을 가진다. 이것은 우가리트 시문학에서 각 행이 보통 2-3개의 강세 음절로 구성된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34] 반면 이사야 6장의 산문 부분에서는 음절, 단어, 강세 음절의 수가 간결하지도 균일적이지도 않다. 예를 들어 산문 문장들에서는 강세 음절의 수가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여섯 개나 사용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 6장의 대부분의 시행들은 장면 묘사 부분(description)과 등장인물들의 직접 화법 부분과 일치하는 반면, 산문 부분은 wayyiqtol 동사를 가진 서술 부분(narration)과 일치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엥그넬(I. Engnell)의 관찰과 유사하다: "이사야의 비전은 고도의 산문 문학의 문체로 제시되고 있지만, 직접 화법들은 운율적 형태를 가진다. … 그 운율은 대개 2+2 혹은 2+3이다."[35]

5abcd는 간결성이나 시행의 균일성만으로 운문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강세 음절의 수만으로 판단한다면 5abcd는 산문이어야 한다. 하지만, 5abcd에 사용된 평행법의 정도와 그 수사적 기능으로 판단할 때, 5abcd는 운문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5abcd는 ABB′A′의 의미적 구조를 가진 연(聯)으로 다양한 대구어들이 그 시행들 사이에 교차적으로 사용된다. 이사야의 '멸망'에 관한 5a(A)와 이사야와 하나님의 직접적 대면을 말하는 5d(A′)는 자연스러운 논리적 짝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참고, 창 32:30; 출 19:21; 20:19; 33:20; 신 18:16; 삿 13:22). 5b와 5c는 동일 구절(**טמא שפתים**, "부정한 입술")의 반복에 의한 평행법을 형성한다. 반복에 의한 평행법은 단순한 의미에 있어서뿐 아니라, 소리에 있어서도 대구를 형성하는 관계로 평행법의 종류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5b, 5c, 5d는 구문(syntax)에 있어서 오프레(P. Affret)가 "crossing symmetry"로 명명한 평행 관

34) Cyrus H. Gordon, *Ugaritic Textbook: Grammar, Texts in Translation, Cuneiform Selections, Glossary, Indice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5), 108.

35) I. Engnell, *The Call of Isaiah*, 20.

계를 보여 준다.[36] 즉 5b와 5c가 교차 대구 구조를 형성하고(P[서술어]-S[주어]=S-P), 다시 5c가 축이 되어 5d와 순차 대구 구조(S-P=S-P)를 형성한다.

그러면 5절을 구성하는 시행들이 다른 시행들보다 유난히 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인이 격해지는 감정을 행 길이의 연장을 통해 표현하기 원한 것으로 보인다(<표1>을 보라). 네 단어로 구성된 5a는 그가 "화로다"(**אוי–לי**)라고 외친 이유를 다소 모호한 추상적 어휘(**כי-נדמיתי**)로 표현한다. 이어지는 행들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들이 제시된다. 다섯 단어로 구성된 5b는 "화로다"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서 찾는다. 즉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죽음의 경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섯 단어로 구성된 5c는 시점을 이사야 개인에서 그의 민족으로 확대하여, 이사야의 신현 경험이 죽음의 경험이 된 이유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 일곱 단어로 구성된 5d에는 왕 중의 왕, 만군의 여호와가 중심 주제로 언급된다. 스스로 부정한 죄인인 동시에 부정한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사야가 오감으로 체험한 존재는 인간 역사를 의로써 심판하시는 왕, 만군의 여호와시다. 5a에서 선지자가 "화로다"라고 외친 이유가 5d에서 그 논리적 절정에 도달한다. 즉 죄인 이사야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다. 이처럼 시행의 길이가 늘어갈수록 이사야의 멸망에 관한 이유도 구체적이 되며, 그 신학적 내용도 깊어진다. 감정이나 주제에 있어 긴장도의 증가가 그것을 표현하는 문장의 길이와 비례하는 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명기 6:24-26에 기록된 제사장의 축복 본문도 마찬가지다. 3개의 절이 하나의 운문 단위를 형성하며, 첫째 절은 3개의 단어로, 둘째 절은 다섯 개의 단어로, 셋째 절은 일곱 개의 단어로 구성된다. 5절의 예(abcd)는 운문의 존재를 단순히 음절, 단어, 강세의 수와 같은 양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37]

---

36) P. Affret, "Essai sur la structure littéraire du Psaume I", *Biblische Zeitschrift* 22 (1978), 36-37.

37) 길이가 긴 행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그것이 운문의 일부인지 산문인지 단언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3α와 9a는 각각 4개의 강세 음절을 가지는 동시에, 이어지는 시행들과 특별한 평행 관계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자를 운문으로 후자를 산문으로 분류했는데, 그 기준은 그 행이 wayyiqtol 동사들로 이어지는 내러티브 플롯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런 관점에서 직접 화법의 일부인 9a는 운문이며, 3α는 산문이 된다. 후자는 wayyiqtol은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태'를 표현하는 weqatal이다. 성경 내러티브에서 wayyiqtol의 동사들이 weqatal의 동사와 함께 쓰이는 예를 확인하려면 삼상 1장을 보라.

5. 반복에 의한 평행법

<표 2> 명사, 형용사, 동사 어근의 반복

어근(사용 횟수)	운문 절	산문 절	분포도
אמר (9)	9a	3α, 5α, 7α, 8αβ, 9α, 11αβ	(근), (원), [근]
זה (5)	7b, 9a, 10a	$3\alpha^{two}$	원, (내), [원]
ראה (5)	5d, $9b'^{two}$, 10a′	1α	내, 원
שמע (4)	$9a'^{two}$, 10b′	8α	내, 원
אדני (3)	11a	1α, 8α	(원), [원]
יהוה (3)	3b, 5d, 12a		원
ישב (3)	1a, 5c, 11b′		원
מלא (3)	1c, 3c	4β	원, [근]
עין (3)	5d, 10c, 10a′		근, 원
עם (3)	5c, 9a, 10a		원
קדש (3)	$3a^{two}$, 13c′		내, 원
שפה (3)	5b, 5c, 7b		정, 원
שנים (3)	2a′, 2b′, 2c′		정
אדם (2)	11c, 12a		근
אזן (2)	10b, 10b′		근
אחד (2)	2c	6α	[원]
אנכי (2)	5b, 5c		정
ארץ (2)	3c, 12b		원
בין (2)	9a′, 10c′		원
בית (2)	11c′	4β	[원]
הלך (2)	8b, 9a		원
הנה (2)	7a, 8a′		원
טמא (2)	5b, 5c		정
כבד (2)	3c, 10b		원
כנף (2)	2b, 2c		정
כסה (2)	2a′, 2b′		정
לב(ב) (2)	10a, 10c′		근
מי (2)	8a, 8b		정
מלך (2)	5d	1α	[원]
מצבת (2)	13b′, 13c′		정
נגע (2)	7a	7α	[근]
עוף (2)	2c′	6α	[원]
צבע (2)	3b, 5d		원

קול (2)		4α, 8α	(원)
קרא (2)		3α, 4α	(근)
שרף (2)	2a	6α	[원]
שאה (2)	11a′, d′		정
שוב (2)	10d′, 13b		원
שלח (2)	8a, 8a′		근
שש (2)	2b, 2c		정

<표 3> 전치사, 접속사, 첨사의 반복

단어 (사용 횟수)	운문 부분	산문 부분	분포도
ו (41)	1b, 1c, 2b′, 3c′, 5c, 7a′, 7b′, 8b, 9a, 9a′, 9b′^{two}, 10b, 10c, 10b′, 10c′, 10d′^{two}, 11c′, 11d′, 12a, 12b, 13b^{two}, 13a′	1α, 3α^{two}, 4α, 4β, 5α, 6α^{two}, 7α^{two}, 8α, 8β, 9α, 11α, 11β	내, 정, 근, 원, (내), (정), (근), (원), [근], [원]
ה (16)	1c, 3c, 5d, 9a, 10a^{two}, 11d′, 12a, 12b^{two}	1α, 4α^{two}, 4β, 6α, 6β	내, 정, 근, 원, (내), (정), (원), [근], [원]
ב (13)	2a′, 2b′, 2c′, 5c, 10a′, 10b′, 12b, 13a^{two}, 13b′	1, 6α′, 6β′	내, 정, 근, 원, (정), (원), [근], [원]
ל (7)	2a, 2c, 5a, 8b, 9a, 10d′, 13b		정, 원
את (6)	1c, 5d, 8a, 12a	1α, 8α	원, (원), [근], [원]
מן (6)	2a, 11b′, 11c′	4α, 6α, 6β	정, 원, (정), (원), [원]
אל (4)	9a′, 9b′	3α, 6β	정, (원), [원]
על (4)	1a, 7b	6β, 7α	원, (근), [근], [원]
כי (3)	5a, 5b, 5d		정
אין (2)	11b′, 11c′		정
אשר (2)	11a′, 13a′		원
כ (2)	13a′^{two}		내
עד (2)	11a, 11a′		근

5.1. 설명

<표2>는 이사야 6장에서 2번 이상 반복되는 명사, 형용사, 동사의 어근을 빈도수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같은 빈도수의 어근들은 다시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운문 부분과 산문 부분을 나누어 어근들이 어느 행에서 몇 번 반복되는지를 표기하였다. 예로 들면, 이사야 6장에서 모두 4번 반복되는 어근 **שמע**는 운문 부분에 "9a′^{two}, 10b′"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9a′에서 두 번, 10b′에서 한 번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표 2>의

마지막 칼럼은 반복에 의한 평행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평행법은 두서너 행으로 구성된 운문 단위(bi-, tri-, quadri-colon), 즉 연(聯)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되지만, 평행법을 시 전체의 구조적 원리로 이해한 학자들(예, 파르디)은 평행법이 시 전체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사용됨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כבד**는 3절과 10절에서 사용되는데, 전통적 관점에서는 평행법의 예로 판별되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원거리 평행법으로 불릴 것이다. 하나의 연 안에 발생하는 '반복'(=평행)이 그 시행들 사이의 수사적 관계(예, A, what's more, B)를 암시하는 것처럼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평행법도 서로 다른 연들 사이의 수사적 관계를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연 안에서 발생하는 평행법은 내적 평행법(약칭 '내')과 정상 평행법(약칭 '정')으로 나뉜다. 정상 평행법은 단일 운문 단위, 즉 같은 연 안의 시행들 사이에 발생하는 평행법이고(예, 8a와 8b에 나오는 **מי**), 내적 평행법은 하나의 시행 안에서 발생하는 평행법(예, 9b′에서 두 번 반복되는 **ראה**)을 말한다. 한편 인접하는 연 사이에 발생하는 평행법을 근거리 평행법(약칭 '근')이라 칭하고, 인접하지 않는 연 사이에 발생하는 평행법을 원거리 평행법(약칭 '원')이라 부른다. 전자의 예로 11c′와 12a에서 반복되는 **אדם**을 들 수 있고, 1a, 5c, 11b′에서 반복되는 **ישב**는 원거리 평행법의 예가 된다. 평행법이 운문뿐 아니라 산문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야 6장의 산문 본문에서도 반복에 의한 평행법이 관찰된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필자는 산문 본문에서의 평행법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둥근 괄호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위의 분포도 칼럼에서 '정'은 운문 본문에 사용된 정상 평행법을 말하지만, '(정)'은 산문 본문에 사용된 정상 평행법을 지칭한다. 아울러, 운문과 산문 본문의 경계를 넘어 형성되는 평행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과 같이 각괄호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전치사, 접속사, 첨사의 반복에 의한 평행법을 표기한 <표 3>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5.2. 분석

<표2>와 <표3>을 일견하면 반복에 의한 평행법이 운문 부분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문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동사 **אמר**의 반복뿐이다. 또한 운문 부분에서 반복된 어휘들은 다양한 분포의 평행법을 형성한다. 즉 내적 평행법, 정상 평행법, 근거리 평행법, 원거리 평행법이 모두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정상 평행법(10회)과 원거리 평행법(17회)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평행법이 연의 행들 사이에 형성되는 것은 히브리 운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반복에 의한 평행법도 그런

정상 분포를 보이는 것이 놀랍지 않지만, 원거리 평행법이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반복에 의한 평행법이 상당한 빈도로 원거리 분포를 보이는 것은 동일 어근이나 어휘의 반복이 가장 쉽게 감지된다는 사실과 관계있다. 뿐만 아니라 반복에 의한 원거리 평행법은 같은 어원을 다소 다른 문맥에서 대조적으로 사용하는 이사야 6장의 수사적 전략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38] 어근 **ישב**를 예로 들어 보면, 이 어근은 모두 세 번(1a, 5c, 11b′) 반복된다. 1a행에서는 하나님의 왕적 위엄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그와 대조적으로 5c행에서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문맥에 사용된다. 나아가 11b′에서 **ישב**의 쓰임은 더욱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멀리 떨어져서, 성읍들의 파괴를 가름하는 표지로 사용된다. 비슷한 주장을 (1) **עין** (2) **ארץ** (3) **שוב** (4) **כבד** (5) **הנה**에 대해서도 펼칠 수 있다.

(1) '눈'을 의미하는 **עין**은 5절과 10절에 등장하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목격하는 이사야의 눈을 가리키는 반면,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없게 된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가리킨다. (2) 3절과 12절에서 반복되는데 **ארץ**("땅")는 전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공간인 반면, 후자에서는 황폐한 곳들로 가득한 공간이 된다. (3) '돌아가다'를 의미하는 **שוב**도 10절과 13절에서 서로 대조적인 뉘앙스를 가진다. 10절에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지만,[39] 13절에서는 후속하는 **היה** 동사와 짝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파멸을 말하는데 사용된다. 만약 같은 어휘를 이처럼 다른 문맥에 사용한데에 문학적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심' 즉 '회복'이 백성들의 완전한 파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13절의 메시지이다. (4) 어근 **כבד**는 이사야 6장에서 두 가지 형태로 등장한다. 한 번은 명사 **כבוד**("영광", 3c)으로, 다른 한 번은 히필 동사 **הכביד**("무겁게 하다", 10b)로 사용된다. 3절에서 사용된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 속죄소 위의 연기 구름 속에 있는 불을 지칭한다(레 16:2).[40]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의 상징이다. 하지만, 동일 어원의 히필 동사 **הכביד**가 10절에서는 정반대의 의미

38) Dennis Pardee, *Ugaritic and Hebrew Poetic Parallelism*, VTS (New York: E.J. Brill, 1988), 170.

39) 10d′행에서 **בוש**와 **אפר**가 짝을 이루어 전자가 "다시"의 부사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약 성경에서 그 두 동사가 함께 사용될 때마다, **בוש**는 언제나 "돌아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참고, 대하 7:14; 사 19:22; 호 6:1).

40) 참고, M. Weinfeld, "*Kāḇôḏ*", G. Johannes Botterweck,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II. (Grand Rapids: Eerdmans, 1995), 30.

로, 즉 은자(隱者)적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10절에 사용된 **כבד**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킨다. 이처럼 동일 어원 **כבד**가 한 번은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의 문맥에서, 다른 한 번은 백성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은자적 하나님의 문맥에서 사용된 것은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교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수사적 기능을 한다. (5) **הנה**도 조금씩 다른 문맥에서 반복된다. 7절에서는 스랍 천사가 정결을 선포할 때 사용되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에 자원하는 이사야의 응답 가운데 사용된다. 동일한 어휘가 다양한 문맥에서 반복되는 것이 시인의 수사적 전력이라면, 우리는 스랍이 이사야에게 행한 입술 정결 의식과 선지자로서의 그의 위임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야의 위임 장면을 메소포타미아의 개구 의식(Mundöffnung)과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스-피터 뮐러(Hans-Peter Müller)에 따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입술 정결 의식이 사제/예언자/술사의 위임식에 해당하는 '개구 의식' 이전에 행해졌기 때문이다.[41]

지금까지 살펴본 반복에 의한 원거리 평행법의 예들은 평행법이 운문 부분에서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사적 기능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운문 부분과 산문 부분에서 교차적으로 반복되는 어휘들을 포함하면, 이런 예들은 더욱 늘어난다. 첫째, **בית**("집")는 한 번은 산문 본문(4β)에, 다른 한 번은 운문 본문(11c′)에 사용된다. 4β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을 표현했던 어휘가 11c′에서는 아무도 살지 않은 버려진 집을 가리킨다. 둘째, 산문 1α행에서 **מלך**("왕")은 신뢰할 수 없는 인간 왕을 가리키지만, 운문 5d행에서 왕은 만군의 여호와를 지칭한다. 이사야 6장이 요담 1년으로 시작하지 않고 웃시야가 죽던 해로 시작한 이유는 죽는 인간 왕과 살아 계신 하늘 왕을 대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인간 왕은 그것이 이집트의 왕이든, 시리아의 왕이든, 바빌론의 왕이든 할 것 없이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이려는 것

41) Hans-Peter Müller, "Sprachliche und Religions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Jesaja 6", *Zeitschrift für Althebräistik* 5 (1992), 171. 손석태는 행 2장의 '성령 강림'을 선지자 위임식으로 이해한다. 그에 대한 증거로 '성령 강림'에 대한 묘사에서 불이 아니라 '혀'가 임했다는 사실을 든다. 그리고 그것을 사 6장과 메소포타미아의 개구 의식과 연결시킨다. 참조, Seock-Tae Sohn, *Reinterpreting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Eugene: Wipf & Stock, forthcoming).

이다. 마지막 셋째, 산문 1α와 운문 5d에 사용된 **ראה**는 웃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가 받은 계시를 가리킨다. 이 계시는 이사야의 정결로 이어진다. 한편 9b′와 10a′에서 사용된 **ראה**는 백성들을 주어로 하여, 부정적 문맥에서 사용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뜻을 보기 원하지만, 보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의 '정결' 즉 멸망으로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산문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반복 어휘는 이런 수사적 반전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일부 어휘들이 산문 부분과 운문 부분에 교차적으로 등장하며, 수사적 반전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사야 6장에서 그 두 본문 층이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보여준다.[42]

전치사와 접속사, 그리고 편사들의 반복에 의한 평행법을 정리한 <표3>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접속사 **ו**의 잦은 사용이다. 이사야 6장의 모든 절에서 무려 41번이나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사용된 횟수도 무려 29번에 이른다. 이것은 이사야 6장이 산문같이 읽히는 이유이다. 또한 접속사 ו가 대표적인 내러티브 문체인 wayyiqtol의 일부로 무려 11번이나 사용된 점도 그런 산문적 인상을 강화시킨다. 접속사 **ו**뿐 아니라 소위 '산문 편사들'(prose particles)도 여러 번 사용된다. 정관사 **ה**는 접속사 **ו**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며(16번), 그 외 **את**와 **אשר**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 산문 편사들은 **אשר**를 빼고 산문과 운문 부분에 교차적으로 출현한다. 어근들의 반복이 산문과 운문의 구별을 뚜렷이 해주는 것과 반대로, 전치사, 접속사, 편사들의 반복은 산문과 운문의 유기적 통합에 기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 사용되는 어휘들에 의한 평행법은 산문 부분보다 운문 부분에서 한층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둘째, 반복적 평행법이 원거리 분포를 보일 때 그 예들은 이사야 6장의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는 수사적 도구로 기능한다. 셋째, 일부 어휘들은 산문과 운문 부분에 교차적으로 반복되며, 그 두 부분의 유기적 통합에 기여한다.

---

42) 산문 부분과 운문 부분에 모두 등장하는 어휘들 중 특별한 수사적 반전 없이 순전히 미학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어근 **מלא**는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반복될 때마다 그 문법적 형태에 변화가 생긴다. 1c행에서는 분사로 등장하고, 3c행에서는 명사로, 4β행에서는 니팔 미완료형으로 사용된다. 어근 **רוע**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언제나 스랍의 술어로 사용되지만, 반복될 때마다 문법적 형태가 변한다. 2c′행에서는 폴렐 미완료형으로 등장하지만, 6α행에서는 칼 미완료형으로 사용된다. 이 예들도 사 6장의 산문과 운문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해 준다.

6.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

<표4>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43)]

1	**α**	b šnt mwt h mlk ʿzyhw w ʾrʾh ʾt ʾdny	1^{1} 2 I 3 I^{1} 4^{1} 5 I^{1} 6 7^{1} 8 I^{1} 9 5 II^{1}
	a	yšb ʿl ksʾ	A 10 I^{1} 11 12 I^{1}
	b	rm w nśʾ	B 13 I^{1} 7^{2} 13 II
	c	w šwlyw mlʾym ʾt h hykl	B′ 7^{3} 14 I 15 I^{1} 9^{2} 4^{2} 12 II
2	a	śrpym ʿmdym m mʿl lw	A 16 I^{1} 10 II 17^{1} 13 III 18^{1}
	b	šš knpym	B 19 I^{1} 10 III-1^{1}
	c	šš knpym l ʾḥd	B′ 19 I^{2} 10 III-1^{2} 18^{2} 19 II^{1}
	a′	b štym yksh pnyw	A 1^{2} 19 II^{1} 20 I^{1} 21 I
	b′	w b štym yksh rglyw	A′ 7^{4} 1^{3} 19 II^{2} 20 I^{2} 21 II
	c′	w b štym yʿwpp	B 7^{5} 1^{4} 19 II^{3} 10 III^{1}
3	**α**	w qrʾ zh ʾl zh w ʾmr	7^{6} 22 I^{1} 23^{1} 24^{1} 23^{2} 7^{7} 22 II^{1}
	a	qdwš qdwš	A 14 II^{1} 14 II^{2}
	b	qdwš YHWH ṣbʾwt	A′ 14 II^{3} 5 III^{1} 5 III-1^{1}
	c	mlʾ kl h ʾrṣ kbwdw	B 15 I^{2} 15 III 4^{3} 12 III^{1} 25 I^{1}(14 III^{1})
4	**α**	w ynʿw ʾmwt h spym m qwl h qwrʾ	7^{8} 26 27 I 4^{4} 27 II 17^{2} 4^{5} 22 III^{1} 22 I^{2}
	β	w h byt ymlʾ ʿšn	7^{9} 4^{6} 12 IV^{1} 15 I^{3} 16 II
5	**α**	w ʾmr	7^{10} 22 II^{2}
	a	ʾwy ly ky ndmyty	A 3 III 18^{3} 28^{1} 3 II(22 VI)
	b	ky ʾyš ṭmʾ śptym ʾnky	B 28^{2} 29 I 30 I^{1} 22 IV^{1}(21 III^{1}) 29 III^{1} [10 I^{2}
	c	w b twk ʿm ṭmʾ śptym ʾnky ywšb	B′ 7^{11} 1^{5} 31 I 29 II^{1} 30 I^{2} 22 IV^{2}(21 III^{2}) 29 III^{2}
	d	ky ʾt h mlk YHWH ṣbʾwt rʾw ʿyny	A′ 28^{3} 9^{3} 4^{7} 5 III^{2} 5 III-1^{2} 8 I^{2} 8 II^{1}
6	α	w yʿp ʾly ʾḥd mn h śrpym	7^{12} 10 III^{2} 24^{2} 19 II^{2} 17^{3} 4^{8} 16 I^{2} [16 IV
	β	w b ydw rṣph b mlqḥym lqḥ m ʿl h mzbḥ	7^{13} 1^{6} 21 III 16 III 1^{7} 10 IV-1 10 IV 17^{4} 11^{2} 4^{9}

43) 앞선 논의에서 히브리어 문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영역에 의한 평행법 분석에서는 파르디가 고안한 표기 방법에 따라 히브리어 자음 본문에 대한 음역을 사용할 것이다. 파르디의 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음역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본문에서 <표4>와 <표5>을 분석할 때도 음역을 사용할 것이다.

7	**α**	w ygʿ ʿl py w yʾmr	7^{14} 20 II^{1} 11^{3} 22 V 7^{15} 22 II^{3}
	a	hnh ngʿ	A 20 II-1^{1} 20 II^{2}
	b	zh ʿl śptyk	B 23^{3} 11^{4} 22 IV^{3}
	a′	w sr ʿwnk	A 7^{16} 20 III 30 II
	b′	w ḥṭṭk tkpr	A′ 7^{17} 30 III 20 IV
8	**α**	w ʾšmʿ ʾt qwl ʾdny ʾmr	7^{18} 8 III^{1} 9^{4} 22 III^{2} 5 II^{2} 22 II^{4}
	a	ʾt my ʾšlḥ	A 9^{5} 32^{1} 10 V^{1}
	b	w my ylk lnw	A′ 7^{19} 32^{2} 10 VI^{1} 18^{4}
	β	w ʾmr	7^{20} 22 II^{5}
	a′	hnny šlḥny	M 20 II-1^{2} 10 V^{2}
9	**α**	w yʾmr	7^{21} 22 II^{6}
	a	lk w ʾmrt l ʿm h zh	M 10 VI^{2} 7^{22} 22 II^{7} 18^{5} 29 II^{2} 4^{10} 23^{4}
	a′	šmʿw šmwʿ w ʾl tbynw	A 8 III^{2} 8 III^{3} 7^{23} 24^{3} 8 IV^{1}
	b′	w rʾw rʾw w ʾl tdʿw	A′ 7^{24} 8 I^{3} 8 I^{4} 7^{25} 24^{4} 8 V
10	a	hšmn lb h ʿm h zh	A 25 II 8 VII^{1} 4^{11} 29 II^{3} 4^{12} 23^{5}
	b	w ʾznyw hkbd	A′ 7^{26} 8 VI^{1} 25 1^{2}(14 III^{2})
	c	w ʿynyw hšʿ	A″ 7^{27} 8 II^{2} 25 III
	a′	pn yrʾh b ʿynyw	A 33 8 I^{5} 1^{8} 8 II^{3}
	b′	w b ʾznyw yšmʿ	A′ 7^{28} 1^{9} 8 VI^{2} 8 III^{4}
	c′	w lbbw ybyn	A″ 7^{29} 8 VII^{2} 8 IV^{2}
	d′	w šb w rpʾ lw	B 7^{30} 20 V^{1} 7^{31} 20 VI 18^{6}
11	**α**	w ʾmr	7^{32} 22 II^{8}
	a	ʿd mty ʾdny	M 34^{1} 2 II 5 II^{3}
	β	w yʾmr	7^{33} 22 II^{9}
	a′	ʿd ʾšr ʾm šʾw	A 34^{2} 35^{1} 36 3 IV^{1}
	b′	ʿrym m ʾyn ywšb	B 12 V 17^{5} 3 V^{1} 10 I^{3}
	c′	w b btym m ʾyn ʾdm	B′ 7^{34} 12 IV^{2} 17^{6} 3 V^{2} 29 IV^{1}
	d′	w h ʾdmh tšʾh šmmh	A′ 7^{35} 4^{13} 12 VI 3 IV^{2} 3 VI
12	a	w rḥq YHWH ʾt h ʾdm	A 7^{36} 25 IV 5 III^{3} 9^{6} 4^{14} 29 IV^{2}
	b	w rbh h ʿzwbh b qrb h ʾrṣ	A′ 7^{37} 15 II 4^{15} 3 VII 1^{10} 32 II 4^{16} 12 III^{2}
13	a	w ʿwd bh ʿśryh	A 7^{38} 37 1^{11} 19 IV
	b	w šbh w hyth l bʿr	B 7^{39} 20 V^{2} 7^{40} 38 18^{7} 16 V
	a′	k ʾlh w k ʾlwn ʾšr	A 39^{1} 27 III 7^{41} 39^{2} 27 IV 35^{2}
	b′	b šlkt mṣbt bm	B 1^{12} 3 VIII 27 V^{1} 1^{13}
	c′	zrʿ qdš mṣbth	B′ 27 VI 14 II^{4} 27 V^{2}

<표 5> 의미 범주들

의미 범주		어휘	운문	산문	분포
1.		*b*	2a′b′c′, 5c, 10a′b′, 12b, 13ab′^{two}	1α, 6αβ	
2. 시간	Ⅰ	ŠNH		1α	[원]
	Ⅱ	MTY	11a		
3. 죽음, 멸망, 파괴	Ⅰ	MWT		1α	내, 정, 근, 원, [원]
	Ⅱ	DMH[44]	5a		
	Ⅲ	ʾWY	5a		
	Ⅳ	Šʾ H	11a′d′		
	Ⅴ	ʾYN	11b′c′		
	Ⅵ	ŠMMH	11d′		
	Ⅶ	ʿZB	12b		
	Ⅷ	ŠLKT	13b′		
4.		*h*	1c, 3c, 5d, 9a, 10a^{two,} 11d, 12ab^{two}	1^{α}, 4α^{two}β, 6αβ	
5. 통치자	Ⅰ	MLK	5d	1α	원, [원]
	Ⅱ	ʾDNY	11a	1α, 8α	
	Ⅲ	YHWH	3b, 5d, 12a		
	Ⅲ-1	ṢBʾWT	3b, 5d		
6.		ʿZYHW		1α	
7.		*w*	1bc, 2b′c′, 5c, 7a′b′, 8b, 9aa′b′^{two}, 10bcb′c′d′^{two}, 11c′d′, 12ab, 13ab^{two}a′	1α, 3α^{two}, 5α, 6αβ, 7α^{two}, 8αβ, 9α, 11αβ	
8. 인지, 인지 기관	Ⅰ	Rʾ H	5d, 9b′^{two}, 10a′	1α	
	Ⅱ	ʿYN	5d, 10ca′		
	Ⅲ	ŠMʿ	9a′^{two}, 10b′	8α	
	Ⅳ	BYN	9a′, 10c′		
	Ⅴ	YDʿ	9b′		
	Ⅵ	ʾZN	10bb′		
	Ⅶ	LBB	10ac′		

44) 파르디 자신이 인정한 대로, 의미 범주에 의한 평행법들을 기록하는 파르디의 방식의 약점은 한 단어가 이중적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을 표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참고, Dennis Pardee, “The Semantic Parallelism of Psalm 89”, W. Boyd Barrick and John R. Spencer, eds., *In the Shelter of Elyon. Essays on Ancient Palestinian Life and Literature in Honor of G. W. Ahlström*, JSOT Supplement Series [New York: E.J. Brill, 1984], 121). 즉 소위 ‘야누스 평행법’을 잡아내기 힘들다. 5절의 nidmē^{y}tī^{y}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그것은 “멸망”의 의미와 “침묵”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필자는 먼저 “죽음, 멸망, 파괴”의 의미 범주(#3) 안에 이 어휘를 분류한 후, “발화와 입”의 의미 범주(#21)에는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해 두었다. 야누스 평행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 E. Wilfred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JSOT Press, 1984), 159.

9.		*ʾt*	1c, 5d, 8a, 12a	1α, 8α	
10. 어전 만좌의 활동 묘사	Ⅰ	YŠB	1a, 5c, 11b′		정, 근, 원, [원]
	Ⅱ	ʿMD	2a		
	Ⅲ	ʿWP[45]	2c′	6α	
	Ⅲ-1	KNP	2bc		
	Ⅳ	LQḤ		6β	
	Ⅳ-1	MLQḤYM		6β	
	Ⅴ	ŠLḤ	8ac		
	Ⅵ	HLK	8b, 9a		
11.		ʿl	1a, 7b	6β, 7α	
12. 장소, 공간	Ⅰ	KSʾ	1a		정, 원, [원]
	Ⅱ	HYKL	1c		
	Ⅲ	ʾRṢ	3c, 12b		
	Ⅳ	BYT	11c′	4β	
	Ⅴ	ʿYR	11b′		
	Ⅵ	ʾDMH	11d′		
13. 높이	Ⅰ	RWM	1b		내, 근
	Ⅱ	NŚʾ	1b		
	Ⅲ	MʿL	2a		
14. 거룩	Ⅰ	ŠWL[46]	1c		정, 원
	Ⅱ	QDŠ	3a[two]b, 13c′		
	(Ⅲ	KBD)	3c, 10b		
15. 多	Ⅰ	MLʾ	1c, 13c	4β	원, [원]
	Ⅱ	RBB	12b		
	Ⅲ	KL	3c		
16. 불, 연기	Ⅰ	ŚRP[47]	2a	6α	원, [원]
	Ⅱ	ʿŠN		4β	
	Ⅲ	RṢPH		6α	
	Ⅳ	MZBḤ		6β	
	Ⅴ	BʿR	13b		
17.		*mn*	2a, 11b′c′	4α, 6αβ	
18.		*l*	2ac, 5a, 8b, 9a, 10d′, 13b		

45) 타르굼은 히브리어 ʿwp를 "시중들다"로 번역한다. 이것은 사 6장에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전에서 시중드는 천사들의 활동을 가리킴을 암시한다.

46) '옷자락'을 의미하는 šwl을 '거룩'의 범주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참조하라.

47)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확실치 않다. 일부 학자는 뱀이나 용 모양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K. Joines, "Winged Serpents in Isaiah's Inaugural Vis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6 [1967], 410-415), 그것의 어원적 의미는 "불타는 존재"이다. 참고, F. Delitzsch, *Isaiah*, 126;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179.

19. 수	Ⅰ	ŠŠ	2bc		내, 정, 근, 원, [원]
	Ⅱ	ʾḤD	2c	6α	
	Ⅲ	ŠTYM	2a′b′c′		
	Ⅳ	ʿŚRYH	13a		
20. 정결과 속죄, 회복	Ⅰ	KSH	2a′b′		내, 정, 원, [근]
	Ⅱ	NGʿ	7a	7α	
	Ⅱ-1	HNH[48]	7a, 8a′		
	Ⅲ	SWR	7a′		
	Ⅳ	KPR	7b′		
	Ⅴ	ŠWB	10d′, 13b		
	Ⅵ	RPʾ	10d′		
21. 신체 기관	Ⅰ	PNH	2a′		정, 원, [근]
	Ⅱ	RGL	2b′		
	(Ⅲ	ŚPH)[49]	5bc, 7b		
	Ⅳ	YD		6β	
	(Ⅴ	PH)		7α	
22. 발화와 소리	Ⅰ	QRʾ		3α, 4α	정, 원, [근], [원]
	Ⅱ	ʾMR	9a	3α, 5α, 8αβ, 9α, 11αβ	
	Ⅲ	QWL		4α, 8α	
	Ⅳ	ŚPH	5bc, 7b		
	Ⅴ	PH		7α	
	(Ⅵ	DMM)	5a		
23.		*zh*	7b, 9a, 10a	$3\alpha^{two}$	
24.		*ʾl*	9a′b′	3α, 6α	
25. 마비와 둔감[50]	Ⅰ	KBD	3c, 10b		정, 원
	Ⅱ	ŠMN	10a		
	Ⅲ	Šʿʿ	10c		
	Ⅳ	RḤQ	12a		

48) 히브리어 hnh의 의미가 “정결, 속죄, 회복”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사 6장에서는 회복과 사명의 문맥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여기에 그것도 ngʿ의 부속 어휘로 분류하였다.

49) 둥근 괄호는 그 안의 어휘가 하나 이상의 의미 범주에 속함을 의미한다. śph (“입”)와 ph (“입술”)는 신체 기관(#20)과 “메시지와 발화”(#21)에 속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둘을 일차적으로 후자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고, 둥근 괄호를 통해 다른 신체 기관과의 의미 연관도 표시하였다.

50) 이 범주는 범주 #8(“인지, 인지 기관”)과 대조적 관계에 있다. 여기 속한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임에 주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둔하게 한 주체가 하나님임을 보여 준다.

26.		NWʿ[51]		4α	
27. 목재, 나무	Ⅰ	ʾMH		4α	내, 정, [원]
	Ⅱ	SP		4α	
	Ⅲ	ʾLH	13a′		
	Ⅳ	ʾLWN	13a′		
	Ⅴ	MṢBT	13b′c′		
	Ⅵ	ZRʿ	13c′		
28.		*ky*	5abc		
29. 사람	Ⅰ	ʾYŠ	5b		내, 정, 근, 원
	Ⅱ	ʿM	5c, 9a, 10a		
	Ⅲ	ʾNKY[52]	5bc		
	Ⅳ	ʾDM	11c′, 12a		
30. 죄와 부정	Ⅰ	ṬMʾ	5bc		정, 원
	Ⅱ	ʿWN	7a′		
	Ⅲ	ḤṬʾT	7b′		
31.	Ⅰ	TWK	5c		원
	Ⅱ	QRB	12b		
32.		MY	8ab		
33.		*pn*	10a′		
34.		*ʿd*	11aa′		
35.		*ʾšr*	11a′, 13a′		
36.		*ʾm*	11a′		
37.		*ʿwd*	13a		
38.		HYH	13b		
39.		*k*	13a′[two]		

6.1. 설명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을 분석한 <표 4>와 <표 5>는 파르디에 의해 최초로 고안된 것이다.[53] 이 표들은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이 두서넛의 행

51) 동사 nwʿ는 하나님이 가시적 세상에 나타날 때 동반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사 6장에는 신현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 즉 *qwl* (“목소리[=천둥]”)와 *ʿšn* (“연기[=구름]”) 등도 사용된다. 사 6장의 신현 장면은 출 20장의 그것을 연상시키는데, 후자에서는 하나님의 등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반면, 전자에서는 문지방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암 9:9와 나 3:12가 암시하는 것처럼 *nw*ʿ를 파괴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 단어를 범주 #3에 첨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52) 1인칭 인칭 대명사가 사 6장에서는 두 번 모두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 대조하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53) 참조, Dennis Pardee, *Ugaritic and Hebrew Poetic Parallelism*.

으로 구성되는 연(聯)에서 뿐 아니라, 연과 연 사이, 나아가 시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필자는 본문에 사용된 단어에 등장 순으로 아라비아 번호를 매기고, 만약 어떤 단어가 선행하는 단어와 의미적으로 연관 있다면, 그것과 동일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이 같은 의미 범주의 단어임을 나타냈다. 단 같은 의미 범주 안의 어휘들을 구분하기 위해 아라비아 번호 옆에 등장 순으로 로마자 번호를 붙인다. <표 4>는 이사야 6장의 전체 본문을 의미 범주의 어휘들의 고유 번호로 '번역' 한 것이고, <표 5>는 어휘들을 출현 순서와 의미 범주 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2a′행을 보자. 그 행의 왼쪽에는 히브리어 자음 본문이 음역만으로 표기되어 있고(b štym yksh pnyw), 오른쪽에는 그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의 고유 번호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1^2 19 II^1 20 I^1 21 I). 이 때 1^2는 b를, 19 II^1은 štym을, 20 I^1은 yksh을, 21 I은 pnyw을 '번역'한 것이다. 독자들은 <표 5>를 통해 숫자 기호와 히브리어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위 첨자로 들어간 아라비아 숫자는 특정 행의 특정 어휘가 몇 번째의 사용인지를 보여준다. 즉 2a′행의 전치사 b는 기호 1^2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2a′행에서 전치사 b의 사용이 이사야 6장 전체로 볼 때 두 번째임을 가리킨다. 첫 번째 사용은 1α에서 이루어졌다. <표 4>에서 위 첨자가 없는 단어들은 이사야 6장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표 4>의 2a′행에서 21 I로 표기된 pnyw는 이사야 6장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이다. 하지만 그 단어는 같은 의미 범주 #21에 속한 다른 단어들(#21 II, III, IV, V)과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을 이룰 수 있다. <표 5>를 통해 우리는 의미 범주에 속한 단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이루는 평행법의 분포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행 번호에 붙은 위 첨자는 그 행에 특정 단어가 몇 번 출현하는지를 보여 준다. #14 II (QDŠ)를 예로 들어 보자. 거기서 그 단어가 출현하는 행들이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3a^{two}$b, 13c′. 이것은 3a행에서 qdš가 두 번(two) 출현하고, 3b행과 13c′행에서는 각각 한 번씩 출현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표 4>와 <표 5>는 이사야 6장에 사용된 어휘들을 의미 연관에 따라 적절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이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지를 보이려는 시도이다.

6.2. 분석

<표 4>와 <표 5>는 의미 범주에 의한 평행법이 이사야 6장의 운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문 부분에 등장하는 평행법

은 이미 운문 부분에서 확립된 평행법의 수사적 기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보조적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의미 범주에 의한 평행법이 연 단위를 넘어 시 전체에서 형성되고 있다. 정상 분포의 평행법(12회)보다 근거리와 원거리 분포의 평행법(8+16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6장의 '인클루지오'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예를 들어, 의미 범주 #3("죽음, 파괴, 멸망")과 #14("거룩") 그리고 #27("목재, 나무")이 이사야 6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54]

이사야 6장의 저자는 의미 범주에 의한 평행법을 날실과 씨줄처럼 엮어서, 이사야 6장의 핵심 주제들이 선명한 문양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55] <표 5>에 제시된 의미 범주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핵심 주제를 분별할 수 있다: (1) 죽음과 멸망; (2) 여호와의 통치; (3) 깨끗케 하는 심판; (4) 하나님의 뜻 분별; (5) 남은 자 사상. 첫째, 죽음과 멸망의 주제는 의미 범주 #3에 속한 어휘들을 통해 전달된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범주의 어휘들이 처음에는 인간 왕 웃시야에게 적용되었다가(#3 I), 나중에 이사야에게(#3 II, III),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3 VI, V, VI, VII, VIII)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의미 범주 #3에 속한 8개의 어휘 중 무려 5개가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사야 6장의 초점이 이사야의 개인적 소명보다는 그가 속한 백성 전체의 부정적 운명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즉 이사야 개인의 환상 체험으로만 보는 것은 '나는 부정한 입술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5절, 사역)라는 이사야 자신의 고백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사야 6장에서 주목할 것은 민족의 운명과 이사야 개인의 운명이 서로 교차한다는 것이다. 이사야가 경험한 멸망의 경험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경험이 될

54) 예를 들어, 사 6장은 웃시야의 죽음(#3 I)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멸망(#3 V, VI, VII, VIII)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다. 이사야의 청각적 비전도 스랍 천사들에 의한 세 번의 "거룩" 송영(# 14 II)으로 시작하여, "거룩한"(#14 II) 남은 자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다. 또한 사 6장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거룩 송영에 전율로 반응한 "문지방"(#27 I, II)은 마지막 부분에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 비유된 잘린 나무들(#27 IV, V)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루터기(#27 VI)와 의미적 대구를 이룬다.

55) 39개의 의미 범주 가운데 19개가 둘 이상의 어휘들을 가지며, 이 중 9개의 의미 범주(#3, #8, #10, #12, #16, #20, #21, #22, #27)가 다섯 개 이상의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미 범주 #3에는 8개의 어휘들이 들어 있고, 이들은 모두 "죽음, 파괴, 멸망"이라는 의미를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3에 속한 어휘들은 사 6장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1절, 5절, 6절, 11절, 12절, 13절), 그 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관점에서 의미 범주 #8("지각과 지각 기관")도 주목할 만 하다. 그 안에는 모두 7개의 어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의 의미적 역에 해당하는 의미 범주 #25("마비와 둔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11개로 늘어난다. 사 6장에서 그 두 의미 범주가 암시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것이다(9-13절).[56]

둘째, 이사야 6장에 사용된 다양한 의미 범주들(#5, 10, 12, 13, 14)은 여호와의 통치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을 포함한다. 의미 범주 #5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세 가지 칭호들(mlk, ʾdny, YHWH ṣbʾwt)을 포함하는데, 이들 모두 왕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다.[57] 의미 범주 #10은 천상의 어전 회의와 관련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Yšb(#10 I)는 통치자의 직무 수행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아모스 1장 5절과 8절에서는 그 동사의 분사형을 통해 '왕'의 의미를 전달한다. ʿmd(#10 II)는 왕 앞에 시중하는 자들의 자세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ʿwp(#10 III)와 lqḥ(#10 IV)는 날개와 손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 스랍 천사들의 어전 활동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어휘들이다. 의미 범주 #12에 속한 단어들은 왕이 앉는 보좌(ksʾ), 왕의 거처(hykl, byt), 혹은 왕의 통치 영역(ʾrṣ, ʾdmh, ʿyr)을 표시한다.

의무 범주 #13과 #14에 속한 어휘들은 왕 되신 여호와의 높은 위엄을 증거한다. 즉 여호와는 인생들과 멀리 떨어진 존재로 그려진다. 각주 1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m(#13 I)과 nśʾ(#13 II)가 ʾdny를 수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간과 구별되는 매우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는 좋은 상징이 된다. Qdš(#14 II)와 마찬가지로 šwl도 하나님의 거룩 즉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은유이다. 출애굽기 29장 24-26절에서 šwl은 대제사장 의복에 달린 술을 가리킨다. 특히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안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술에 달린다. 왜냐하면 조금의 죄도 용납되지 않는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도 죽음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šwl은 하나님의 거룩과 치명성을 동시에 상기시키는 상징물이다. 따라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그것이 신적 위엄의 은유로 사용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 1-4절에 사용된 인클루지오 구조도 šwl과 하나님의 거룩 간 의미 연관 관계를 확인시

---

56) 사 6장에 대한 이런 이해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오스왈트에 따르면, 이사야서의 주제는 "servanthood"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여호와의 종으로 선포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이 그런 종이 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사 6장은 "어떻게 죄악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참고,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54.

57) 1절에 사용된 ʾdny는 원래 YHWH였던 본문을, '인간이 여호와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불편해하는 맛소라 학자들에 의해 수정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YHWH를 보았다는 이사야의 고백(5절)에 의해 효과적으로 반박된다. 오히려 사 6장의 저자는 "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듯 보인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묘사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1b행(rm wnśʾ["높이 들려진"])이 "보좌"가 아니라 (적어도 마소라 강세에 따르면) "주"를 수식한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더욱이, 5절에서 여호와는 "왕"으로 칭해진다. 이사야서에서 "왕"과 "여호와"의 호칭은 종종 심판의 문맥(1:24; 3:1, 15)과 구원의 문맥(10:24; 44:6)에서 짝을 이루며 등장한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부족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인, 즉 온 땅의 주인임을 강조한다.

켜준다: “šwl이 성전을 채운다”(1c)라는 말과 “ʿšn이 그 집을 채운다”(4β)가 이사야의 환상 부분을 시작하고 맺는다. 평행 구조상 그 집을 채운 연기는 성전을 채운 하나님의 옷자락과 대구가 되기 때문에,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상징인 것처럼 그의 옷자락도 그러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셋째, 불과 연관된 의미 범주 #16은 이사야 6장에서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즉 정결과 멸망을 신학적으로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사야의 입은 뜨거운 제단(#16 IV)에서 가져온 “숯”(#16 III)으로 정결케 된다. 이사야에게 입술 정결 의식(Mundreinigung)을 행하고 정결을 선포한 것도 “불타는 존재” 즉 스랍 천사들이다(#16 I). 하지만 의무 범주 #16에 속한 다른 어휘 bʿr(“태우다”, #16 V)는 13절에서 멸망과 파괴의 이미지로 사용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을 전달하는데 있어 동일한 의미 범주(“불” #16)의 어휘들을 사용한 것은 불이 자연 세계에서 때로는 생명의 요소, 때로는 죽음의 요소로 기능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이사야 6장의 저자는 그 이미지를 통해 죽음과 생명이 서로 인과적 관계에 있음을 보이려 한 것이다. 알스트롬(G. W. Ahlström)은 13절의 bʿr(“태우다”)가 겨울 들판에 불을 놓아 땅의 비옥함을 되살리는 관행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주장이 옳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전쟁 — 즉 아시리아의 군대가 가져올 파괴 — 이 나중에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58] 다시 말해 파괴가 정결 즉 새 출발의 효과를 낸 것이다. 이런 이해는 13절 마지막 행의 핵심 주제 — 베임을 당한 그루터기에서 돋는 싹, 즉 완전히 파괴된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새 생명 — 와도 잘 조화된다.

넷째, 의미 범주 #8에 속한 어휘들은 “여호와의 뜻, 계획”(ʿēṣāʰ)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59]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 중 하나가 “여호와의 뜻, 계획”이다. 이사야 자신이 “여호와의 뜻, 계획”을 자주 언급할 뿐 아니라(5:12, 19; 14:24, 27; 19:11-12; 23:8-9; 28:29), 이사야 6장에서는 여호와의 ʿēṣāʰ가 공표되는 천상의 어전 회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보았으며(rʾh, #8 I), 왕 되신 그 분의 음성을 들었으며(šmʿ, #8 III),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byn, #8 IV), 그에 기꺼이 참여하려 하였다. 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rʾh) 못하고, ‘듣지도’(šmʿ) 못하고 ‘이해하지도’(byn) 못한다. 이 때 이사야 6장의 저자는 선지자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어휘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백성들의 ‘무

58) G. W. Ahlström, “Isaiah 6:13”, 170.

59) 여호와의 *ʿēṣāʰ* (“뜻”)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W. Brueggemann, “Planned People/Planned Book?”, Craig C. Broyles and Craig A. Evans, eds.,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Vol 1. (Leiden: Brill, 1997), 20-21을 참조하라.

지'를 표현한다.[60] 일련의 감각 동사들은 물론 그 감각들과 관계있는 기관들 — "눈"(#8 II), "귀"(#8 VI), "마음"(#8 VII) — 도 선지자의 지식과 백성들의 무지에 대한 시문에 모두 사용된다.

인지와 인지 기관에 관한 의미 영역 #8은 마비와 둔감의 의미 영역인 #25와 분리되어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보지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의미 영역 #8에 속한 인지 동사들이 모두 감각 기관과 연관된 것처럼 의미 영역 #25에 속한 어휘들도 감각 기관과 연관되어 있다. 즉 šʿʿ(#25 III)은 보이지 않는 눈과 관계하며, šmn(#25 II)은 들리지 않는 귀, 그리고 kbd(#25 I)는 굳은 마음과 연결된다. 흥미롭게도 이 마비와 둔감 어휘들은 모두 히필 동사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뜻과 계획에 대해 무지하도록 만든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라는 사실을 암시한다.[61] 이처럼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백성들의 무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에게 회복의 희망이 없던 것은 아니다. 그 희망은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의 개인적 경험이 민족의 집단적 경험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서 암시된다. 즉 선지자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와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계시받은 것처럼 백성들도 종국에는 아시리아의 침략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뜻을 보도 듣고 깨달을 눈과 귀와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사야 32장 3-4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

60) "보다"(rʾh, #8 I), "듣다"(šmʿ, #8 III), "이해하다"(byn, #8 IV)가 비록 감각 지각과 관련된 표현들이지만, 그것들이 지식과 관련 있다는 것은 사 6장의 저자가 9절에서 이 어휘들의 대구어로 *ydʿ*("알다", #8 V)를 사용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61)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개념, 혹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들로부터 임재를 거두어 멸망하게 만드신다는 개념이 이사야가 하늘의 어전 회의에서 받은 사명 속에 들어있다. 이것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이 처한 국제 정세 가운데 이해되어야 한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시리아에게 있었다.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시리아에 새로운 제국 정책을 도입한 이래, 이스라엘을 포함한 시리아-팔레스타인 전체가 아시리아의 영토적 야심에 노출되었다. 이사야는 그런 국제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힘을 빌어 아시리아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의미도 가진다(Andrew F. Key, "The Magical Background of Isaiah 6:9-1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6 [1967], 199). 이사야의 견해에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침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순리, 즉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스라엘은 그런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과 파괴를 정결하게 되어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즉 아시리아의 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신뢰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은혜라 할 수 있다.

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사야 6장의 핵심 주제는 '남은 자'이며 이것은 의미 영역 #27에 속한 어휘들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이 어휘들은 모두 나무와 목재를 연상시키는 것들이다. ʾlh(#27 III)와 ʾlwn(#27 IV)의 정확한 수종(樹種)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들이 모두 오크 계열의 나무라는 사실이다.[62] 이들이 잘리고 남은 "그루터기"(mṣbt, #27 V)에서 새 생명이 움트게 될 것이다. 완전한 파멸의 상징으로부터 새 출발을 의미하는 "씨"(zrʿ, #27 VI)가 자라날 것이다. ʾlh와 ʾlwn은 '남은 자'의 주제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한 종류의 나무이다. 모든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은 아닌데, ʾlh와 ʾlwn은 그 뿌리의 길이가 최대 400미터에 달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63]

동일한 의미 영역 #27에 속한 어휘 중 조금 다른 문맥(4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ʾmh(#27 I)가 구약 성경에서 건축 구조의 일부로 사용된 것은 현 문맥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어머니'를 의미하는 ʾm에서 파생한 단어로 이해되어 '터'(『개역개정』, ESV "foundation")로 번역된다. 반면, ʾmh와 연계 구문으로 결합된 어휘 sp (#27 II "문지방")는 비교적 그 의미가 분명하다(참고, 삿 19:27; 왕상 14:17; 겔 40:6).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4절에서 신현에 대한 반응으로 "문지방의 터"가 언급된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그레이(G. Buchanan Gray)는 그 이유를 스랍 천사들이 문지기였다는 사실에서 찾고, 델리취(F. Delitzsch)는 이사야가 성전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64] 하지만 평행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 6장의 저자가 신현에 대한 반응을 묘사하면서 "문지방의 터"의 흔들림을 언급한 것은 "문지방의 터"가 나무와 가지는 연상 작용 때문이다. 필자가 두 어휘 ʾmh와 sp를 의미 영역 #27에 포함시킨 것은 고대 사회에서 '문지방'과 그 '터'가 나무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이다. 이런 가정은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이나 궁전의 문틀과 문지방, 그리고 문 자체도 나무로 제작되었다는 고고학적 사실에 근거할 뿐 아니라, ʾmh('터')와 같은 어원의 아카드어인 ammatu가 '목재'를 의미한다는 언어적 사실에도 근거한다.[65] "문지방의

62) Irene Jacob, "Flora", Noel Freedman, et al., eds., *Anchor Bible Dictionary*, Vol II. (New York: Doubleday, 1992), 805.
63) Ibid.
64) F. Delitzsch, *Isaiah*, 126.
65) *Chicago Assyrian Dictionary*, Vol. 1, 70.

터”와 나무와 연관성은 그것이 신현의 문맥에서 동사 nwʿ(‘흔들리다’)와 짝을 이룬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이사야 6장에는 출애굽기 19장의 신현에 동반된 세 가지 자연 현상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19장의 천둥, 번개, 구름(19:6)이 이사야 6장에서는 천사들의 찬양, 성전 제단의 불, 성전을 채운 연기의 형태로 재연되어 있다. 나아가 이런 신현 현상에 대한 반응도 이사야 6장과 출애굽기 19장 모두에서 ‘떨림, 흔들림’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그 둘의 차이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ḥdr),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는 것이다.[66] 하지만, 이사야 6장에서 “문지방의 터”가 나무와 연관된 다른 어휘들(의미 연관 #27의 어휘들)과 의미적 평행법을 이룬다는 사실과 13절에서 나무와 관련된 어휘들이 모두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은유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야 6장에 나타난 신현에 대한 ‘문지방의 떨림’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강하게 연상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문지방의 터”가 13절의 나무와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을 이룬다면, 그것은 13절의 마지막 행(13c′)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런 논조 변화를 예상하게 해 준다. 일부 학자들은 11절부터 지속되어 온 완전한 파멸의 이미지가 13절의 마지막 행에서 생명의 이미지로 바뀐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겨, 그 마지막 행을 후대의 첨가 구절로 이해한다. 하지만 13절에 파멸의 이미지로 사용된 의미 범주 #27의 어휘들이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반응하는 “문지방의 터” — 이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임 — 와 의미적 대구를 이룬다는 사실은 13절의 마지막 행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의미 범주 #27의 어휘(zrʿ)가 파멸의 상징이었던 “그루터기”(13b′)에 생명의 의미를 넣은 것이 결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이다”(13c′).

지금까지 필자는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이 이사야 6장의 핵심 주제들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 논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산문 부분을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문 부분에서는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이 이사야 6장의 핵심 주제와 연결되는 명시적 예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행법이 산문 부분이 운문 부분에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의 산문 부분과 운문 부분이 서로 상합하여 그 장의 수사적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66) 비록 *nwʿ*와 *ḥdr*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다. 현재 필자는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을 논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준다. 예를 들어 '불'과 관련된 의미 범주(#28)에 속한 어휘들을 논할 때, 필자는 운문 부분의 예들(2a행의 śrp, 13b행의 bʿr)만을 살폈다. 물론 운문 부분의 예들만으로도 "정결케 하는 심판"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산문 부분(4β행의 ʿšn, 6α행의 śrp, 6β행의 rṣph와 mzbḥ)을 함께 고려하면 그 주제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 풍성해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7. 산문 본문 분석

<표6> 이사야 6장에 사용된 동사들의 태[67]

		주어	동사
1	α	(이사야, 1인칭)	**ואראה** (wayyiqtol)
2	a′	(스랍 중 하나)	**יכסה** (*yaqtulu*)
	c′	(스랍 중 하나)	**יעופף** (*yaqtulu*)
3	α	**זה** "스랍 중 하나"	**וקרא** (weqatal)
	α	(스랍 중 하나)	**ואמר** (weqatal)
4	α	**אמות הספים** "문지방 터"	**וינעו** (wayyiqtol)
	β	**הבית** "그 집"	**ימלא** (yaqtulu)
5	α	(이사야, 1인칭)	**ואמר** (wayyiqtol)
	a	(이사야, 1인칭)	**נדמיתי** (*qatala*)
	d	**עיני** "내(이사야의) 눈"	**ראו** (*qatala*)
6	α	**אחד השרפים** "스랍 중 하나"	**ויעף** (wayyiqtol)
	β	(스랍 중 하나)	**לקח** (*qatala*)
7	α	(스랍 중 하나)	**ויגע** (wayyiqtol)
	α	(스랍 중 하나)	**ויאמר** (wayyiqtol)
	a	(뜨거운 숯)	**נגע** (*qatala*)
	a′	**עונך** "너의(이사야의) 죄"	**וסר** (*weqatáltî*)
	b′	**הטאתך** "너의 죄악"	**תכפר** (*yaqtulu*)
8	α	(이사야, 1인칭)	**ואשמע** (wayyiqtol)
	a	(여호와, 1인칭)	**אשלח** (*yaqtulu*)
	b	(불특정 3인칭 주어)	**ילך** (*yaqtulu*)

67) 이 표는 사 6장에 사용된 모든 직설법 동사(분사, 명령형 제외)를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 주어와 함께 표시하였다. 히브리 동사 옆의 괄호 안에 내용은 태를 표시한다: yaqtulu: 미완료; qatala: 완료; wayyiqtol: 와우 연계형 미완료; weqatáltî: 와우 연계형 완료; weqatal: 와우 접속사와 완료.

	β	(이사야, 1인칭)	**ואמר** (wayyiqtol)
9	α	(주님의 목소리)	**ויאמר** (wayyiqtol)
	a	(이사야, 2인칭)	**ומארת** (*weqatáltî*)
10	a′	(사람들)	**יראה** (*yaqtulu*)
	b′	(사람들)	**ישמע** (*yaqtulu*)
	c′	(그들의 마음)	**יבין** (*yaqtulu*)
	d′	(그들의 마음)	**ושב** (*weqatáltî*)
	d′	(그들의 마음)	**ורפא** (*weqatáltî*)
11	α	(이사야, 1인칭)	**ואמר** (wayyiqtol)
	β	(주님의 목소리)	**ויאמר** (wayyiqtol)
	a′	**ערים** … **בית** “성읍 … 집”	**שאו** (*qatala*)
	d′	**האדמה** “그 땅”	**תשאה** (*yaqtulu*)
12	a	**יהוה** “여호와”	**ורחק** (*weqatáltî*)
	b	**העזובה** “버려진 곳”	**ורבה** (*weqatáltî*)
13	b	(십분의 일)	**ושבה** (*weqatáltî*)
	b	(십분의 일)	**והיתה** (*weqatáltî*)

7.1. 분석

지금까지 필자는 이사야 6장이 산문과 운문의 두 문체의 본문으로 구성되었고, 묘사 본문과 직접 화법 본문은 모두 운문으로, 서술 본문은 산문으로 이루어졌음을 본문에 사용된 평행법의 분포와 그것의 수사적 기여도를 통해 증명해 보이려 했다. 이사야 6장의 대부분이 운문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평행법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논의의 대부분이 운문 본문의 분석에 있었다. 지금은 이사야 6장의 산문적 특징을 살필 순서이다.

이사야 6장의 산문체의 특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와우 연계형 미완료(wayyiqtol)의 사용이다. 이 wayyiqtol 동사들은 이사야 6장의 내러티브의 흐름을 이어간다. 유일한 예외는 천사들의 직접 화법을 도입하는 3α이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וקרא** … **ואמר**)은 와우 연계형 미완료가 아니라, 와우 접속형 완료(weqatal)이다. 후자는 운문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는 와우 연계형 완료형(weqatáltî)과 달리 태(aspect)의 변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와우 접속형 완료는 와우 연계형 미완료처럼 완료태(perfectivity)를 표현한다. 한편, <표6>을 보면, 와우 연계형 완료 동사들이[68] 운문 부분에서 무려 8회나 사용되는 반면, 와우 연계형 미완료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8) 와우 연계형 완료는 미완료 동사와 시제와 태에 있어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에서 와우 연계형 미완료가 종종 사용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69] 한스-피터 뮐러가 관찰한 대로 이사야 6장에서 산문 본문에만 등장하는 와우 연계형 미완료 동사들은 다양한 시행들을 내러티브의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거치시킨다.[70] 원거리 대구어들에 의한 평행법이 운문을 산문과 통합시키는 것처럼, 와우 연계형 동사들도 이사야 6장 전체에 흩어진 시행들의 거치대 역할을 함으로써 비슷한 역할을 감당한다.

한편, 와우 연계형 동사들에 의한 내러티브의 흐름은 이사야의 환상을 묘사하는 부분과 동사 **אמר**에 의해 도입되는 어전 회의 참가자들의 직접 화법에 의해 중단되므로 와우 연계형 동사들을 이어 붙이고, 동사 **אמר**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사야 6장의 '산문체 버전'을 얻을 수 있다:

> 나는 주님을 "보았다"(1α); 천사들이 "찬양할 때"(3α) …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4α); 내가 "회개했을 때"(5α) … 스랍 천사 하나가 "날아와서"(6α) 숯을 내 입에 "대며(7α) … 정결을 선포했다"(7β);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8α); 주님은 나를 (선지자로) "임명했다"(9α); 하지만 나는 "불평했다"(11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말씀을 주셨다"(11β).

이와 비슷한 내러티브의 흐름을 보여주는 '위임'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 19-22절에서도 발견된다. 후자는 천상의 어전 회의에 대한 선지자 미가야의 환상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전형적인 산문 내러티브이다. 완료형 동사로 이야기를 시작한 후, 와우 연계형 미완료형 동사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간다.[71] 내러티브의 흐름을 멈추려는 듯 중간 중간에 삽입된 대화 부분과 질문과 대답으로 된 대화 형식도 이사야 6장을 상기시키지만, 미가야의 환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산문으로 구성된다. 직접 화법 부분도 명확한 산문이다. 이사야 6장에서처럼 수사적 기능을 가진 평행법이 열왕기상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사야 6장의 저자가 어전 회의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을 열왕기서의 경우처럼 철저히 산문체로 전달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이사야 6장을 산문과 운문의 정교한 상합 본문

---

69) 예를 들어, 시 3:5의 **ינענני**; **ינשׂאו**.

70) Hans-Peter Müller, "Sprachliche und Religion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Jesaja 6", 165.

71) "내가 보니"(19절)라는 완료형 동사 뒤에 일련의 분사들이 어전 회의의 위엄을 묘사한다. 그리고 다시 와우 연계형 미완료 동사들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어 간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20절) … (천사들이) 서로 "의논하였다"(21절) … 한 영이 "나아와" … 여호와 앞에서 "서서,"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하였다"(21절) … 여호와께서 다시 "물으셨다"(22절) … 그 영이 "대답했다"(22절) …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22절).

으로 구성하였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운문 부분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에 보다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서 저자는 6장을 산문과 운문의 복합 문체로 구성했을까? 그것은 이사야 6장이 보다 큰 문맥에서 감당하는 교량적 역할 때문인 듯하다. 이사야 6장은 운문으로 된 이전 예언(1-5장)을 요약하는 동시에 이후 예언(7-39장)의 주요 주제들을 소개한다.[72] 먼저, 이사야 6장에 담긴 핵심 주제들은 이미 1-5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는 동시에, '남은 자'의 존재와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사야 2-3장은 이사야 6장 1-4절처럼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영광스러운 왕에 집중한다. 4장은 거룩한 씨에 대한 것이다. 5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이사야의 설교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 준다. 여기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며, 그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5:12-13).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롱한다(5:19). 이처럼 이사야 6장은 1-5장의 내용을 요약할 뿐 아니라, 후속 장들의 내용도 미리 예고해 준다. 백성들의 마음을 강퍅케 하는 이사야의 사명이 성취되어 가는 역사적 배경이 주전 738년부터 701년까지 지속된 아시리아의 군사 위협인데,[73] 7-39장의 내용은 디글랏 빌레셀의 위협에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맹을 맺고 유다를 압박한 일, 또한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일 등을 배경으로 한다. 임박한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해 이사야는 아람 혹은 이집트와 같은 외국의 힘을 빌려 아시리아에 대항할 생각을 말라고 촉구하는데, 이런 이사야의 메시지에 백성들은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 버린다.[74]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대로 아시리아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목도한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요약하면 이사야 6장은 이전의 운문 예언들을 요약하고 이후의 내용을 예견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데,

---

72) 참조, 홍성혁, "이사야서 6장의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구약논단」 15 (2009), 138-141.

73) 블렌킨소프는 바로 이 때문에 사 6장이 예언이 아니라, 선지자의 자기변호라고 주장한다. 즉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사야가 사 6장을 통해, 백성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자신의 사명이 성취된 것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 6장이 주전 734년에 발생한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관련한 그의 사명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6-8장을 하나의 독립된 문학 단위(Denkschrift)로 이해한다(J. Blenkinsopp, *Isaiah 40-55*, 223-224). 하지만 사 6:10-13의 내용은 산헤립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주전 701년)에서 절정에 달한 이스라엘에 대한 아시리아의 적대 정책을 배경으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74) H. K. Kim,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40.

이사야 6장의 산문과 운문의 혼합체는 이런 이사야 6장의 교량적 역할에 최적화된 문체라 할 수 있다.

8.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이사야 6장이 산문과 운문의 혼합 문체로 저자의 수사적 목적에 그 두 문체가 정교하게 혼용되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이사야 6장의 본문에서 운문을 가려내기 위해 양적인 분석과 반복과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 분석을 시행했다. 운문 부분의 대부분의 시행들은 둘 혹은 셋의 강세 음절로 구성되어 길이에 있어 균일성을 보였지만, 산문 문장들 사이에는 그런 균일성을 찾을 수 없었다. 아울러 평행법은 운문 부분에서 보다 지배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의미 연관에 의한 평행법은 이사야 6장의 핵심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하였다. 이렇듯 이사야 6장이 산문과 운문의 혼합 본문이며, 실제로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문체는 이사야 6장 전체의 수사적 구조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 두 층의 본문은 서로 상합하여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룬다. 그 둘을 서로 떼어 읽으면 이사야 6장의 미학적이며 수사적인 미를 충분히 감상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문체는 이사야 6장이 보다 큰 문맥에서 기여하는 교량적 역할과 잘 어울린다.

<주제어>(Keywords)
이사야 6장, 평행법, 히브리 운문, 소명 내러티브, 개구 의식.
Semantic Parallelism, Isaiah 6, Call Narrative, Mouth-Opening, Divine council.

(투고 일자: 2018년 6월 12일, 심사 일자: 2018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10월 25일)

<참고문헌>(References)

김구원, “시편 23편의 평행법 연구”, 「개신논집」 18 (2018), 37-53.

장대규, “이사야 6장과 마체바의 의미와 기능 연구”, 「구약논단」 14 (2008), 67-86.

홍성혁, “이사야서 6장의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구약논단」 15 (2009), 137-154.

Affret, P., “Essai sur la structure littéraire du Psaume I”, *Biblische Zeitschrift* 22 (1978), 26-45.

Ahlström, G. W., “Isaiah 6:13”, *Journal of Semitic Studies* 19 (1974), 169-172.

Berlin, A.,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Blenkinsopp, Joseph, *Isaiah 40-55*, New York: Doubleday, 2000.

Brueggemann, Walter, “Planned People/Planned Book?”, Craig C. Broyles and Craig A. Evans, eds.,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Vol 1., Leiden: Brill, 1997, 19-37.

Buttrick, G. A.,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ton, 1962.

Delitzsch, F., *Isaiah*,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6.

Engnell, I., *The Call of Isaiah, An Exegetical and Comparative Study*, Leipzig; Uppsala: A.-B. Lundequistaka, 1949.

Gordon, Cyrus H., *Ugaritic Textbook: Grammar, Texts in Translation, Cuneiform Selections, Glossary, Indice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5.

Gray, G. Buchana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Edinburgh: T&T Clark, 1912.

Jacob, Irene, “Flora”, Noel Freedman, et al., eds., *Anchor Bible Dictionary*, Vol II., New York: Doubleday, 1992, 803-817.

Joines, K., “Winged Serpents in Isaiah’s Inaugural Vis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6 (1967), 410-415.

Keel, O., *Jahwe-Visionen und Siegelkunst. Eine Neue Deutung der Majestätsschilderungen in Jes. 6, Ez 1 und Sach 4*, Stuttgart: Verlag Catholisches Bibelwerk, 1977.

Key, Andrew F., “The Magical Background of Isaiah 6:9-1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6 (1967), 198-204.

Kim, H. K.,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1.

Kugel, James,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Müller, Hans-Peter, "Sprachliche und Religions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Jesaja 6", *Zeitschrift für Althebräistik* 5 (1992), 163-185.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Grand Rapids: Eerdmans, 1986.

Pardee, Dennis, "Ugaritic and Hebrew Metrics", Gordon D. Young, ed., *Ugarit in Retrospect: Fifty Years of Ugarit and Ugaritic*, Winona Lake: Eisenbrauns, 1981, 113-130.

Pardee, Dennis, "The Semantic Parallelism of Psalm 89", W. Boyd Barrick and John R. Spencer, eds., *In the Shelter of Elyon. Essays on Ancient Palestinian Life and Literature in Honor of G. W. Ahlström*, JSOT Supplement Series, New York: E.J. Brill, 1984, 121-137.

Pardee, Dennis, *Ugaritic and Hebrew Poetic Parallelism*, VTS, New York: E.J. Brill, 1988.

Pardee, Dennis, "Structure and Meaning in Hebrew Poetry: The Example of Psalm 23", *Maarav* 5-6 (1990), 239-280.

Roberts, J. J. M., "Double Entendre in First Isaia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4 (1992), 39-48.

Sohn, Seock-Tae, *Reinterpreting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Eugene: Wipf & Stock, forthcoming.

Sweeney, Marvin A.,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6.

Wagner, Renate, *Textexegese als Strukturanalyse: Sprachwissenschaftliche Methode zur Erschliessung althebräischer Texte am Beispiel des Visionsberichtes Jes 6, 1-11*, Arbeiten zu Text und Sprache im Alten Testament, Erzabtei St. Ottilien: EOS Verlag, 1989.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Watson, G. E. Wilfred,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JSOT Press, 1984.

Watts, John D. W., *Isaiah 1-33*, WBC, Waco: Word Books, 1985.

Weinfeld, Moshe, "*Kāḇôḏ*", G. Johannes Botterbeck,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II, Grand Rapids: Eerdmans, 1995, 22-38.

<Abstract>

Poetical Structure of Isaiah 6

Koowon Kim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The literatures that Isaiah 6 has spawned are legion, a testimony to its continuing fascination and appeal. There are good reasons for such fascination and appeal. Apart from the fact that Isaiah 6 plays a pivotal role in summarizing the previous chapters and in anticipating the rest of the book, the text poses a series of interesting textu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conundrums: for instance, the historical setting of Isaiah 6, its genre as a call narrative, the identity of the seraphim and their role, an apparent break within Yahweh's speech between verses 11 and 12, the authenticity of the last three words in verse 13, *zeraʿ qōdeš maṣṣabetāḥ*, the theological implication of the divine hardening (*Verstockung*) in vv. 9-10 and so on.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however, to its poetic features. Such seems to be due partly to the narratival impression created by the sequence of *wayyiqtol*s that permeate the whole chapter (vv. 1, 4, 5, 6, 7, 8, 9, 11). This impression may be reinforced by a heavy use of prose particles, w (41 times) *ʾt* (6 times), *ʾšr* (2/3 times), and *h* (16 times). But a closer study of the text shows a sophisticated poetic artistry throughout the chapter. In this paper, I will therefore restrict myself to the analysis of the poetic structure of Isaiah 6 without attempting to solve all its textu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ques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Isaiah 6 is composed of two layers of text, namely, poetry and prose, which are closely integrated and yet separable from each other. To that end, various types of parallelism and their different distributions will be discussed together with "terseness" as a way of separating out poetry from prose in Isaiah 6. In particular, the notation system invented by Dennis Pardee will be used to map out various distributions of parallelism in the poetic portion of Isaiah 6. This article shows that parallelism dominates the poetic portion of the text while fulfilling what A. Berlin calls its "poetic function" in the text, and that the two layers of text are closely integrated to each other in such a way that we cannot fully appreciate the beauty of the text without reading the chapter as an integrated whole.